



즉시 배포용: 4/9/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방심운전에 대해 엄중 단속을 알리다

뉴욕주경찰, 표식된 차량 및 미표식된 차량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기타 장비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수백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 청소년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4월이 미국 방심운전 인식 제고의 달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방심운전 시 뉴욕시 전역에서 엄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4월 10일 – 15일, 주경찰관들은 표식된 경찰 차량과 미표식 차량을 이용해 운전 중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가차 없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방심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엄중 단속으로 다시 한 번 운전 중 전화 통화나 문자 전송이 뉴욕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께서는 도로에서 휴대용 기기를 내려놓고 운전에만 전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립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3년에 방심운전으로 인한 추돌 사고로 미국 전역에서 3,154명이 사망했고 424,0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망사고 중 10%는 추돌 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2013년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형벌 중의 일부의 입법에 [서명하였고](#), 현 뉴욕주 법으로 방심운전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초 위반 시, 최소 벌금은 \$50이고 최대 벌금은 \$200이다
- 18개월 후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벌금이 250 달러로 증액된다
- 18개월 후 세 번째 위반 시 최대 벌금이 450 달러로 조정된다
- 집행유예 중인 운전자와 청소년 운전자는 최초 위반 시 120일의 운전면허 정지에 처해지며, 6개월 내에 두 번째 위반을 할 경우 운전허가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1년간 취소된다.

방심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Operation Hang Up은 순찰 및 검문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 단속입니다. 경찰관들은 운전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운전자를 식별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표식된 주 경찰 차량과 미표식 교통 단속(CITE) 차량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표식 차량을 이용하면 경찰관들이 방심운전 위반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매일 교통에 섞이지만 비상등을 일단 활성화면 비상 차량으로 확실해집니다.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마지막 캠페인에서, 주경찰은 방심운전으로 발부된 550여건의 범칙금 티켓을 포함해 1,000여건의 티켓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들 티켓은 운전 중 핸드프리 장치 없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문자전송하고, 또는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한 것을 합친 것입니다.

뉴욕경찰청장 Joseph D'Amic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법규 위반 행위로 뉴욕주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문자 전송이나 통화 모두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욕주경찰관들은 이 단순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가차 없이 범칙금 티켓을 발부할 것입니다.”

이 단속 활동은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afeny.ny.gov> 에서 확인하십시오. 뉴욕주의 휴대폰 및 문자전송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mv.ny.gov/cellphone.htm에서 확인하십시오. 방심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istraction.gov에서 확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